

【 P3-12 】

## 6개월 모유영양 영아 어머니의 이유지식에 관한 고찰

강순아<sup>1)\*</sup>, 임음호<sup>1)</sup>, 김계애<sup>2)</sup>, 우연희<sup>2)</sup>, 전용훈<sup>3)</sup>, 김순기<sup>3)</sup>전국대학교 분자생명공학과 생명분자정보학센터<sup>1)</sup>, 인천시 중구보건소<sup>2)</sup>,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 교실<sup>3)</sup>

## A study of mothers' nutritional knowledge on weaning of breast-fed infants, the age of 6 months

Soon Ah Kang<sup>1)\*</sup>, Yoong-Ho Lim<sup>1)</sup>, Yean Hee Woo<sup>2)</sup>, Gye Ae Kim<sup>2)</sup>, Yong Hoon Jun<sup>3)</sup>,  
Soon Ki Kim<sup>3)</sup>Dept. of Molecular Biotechnology, BMIC, Konkuk University, Seoul<sup>1)</sup>, Health Center, Jung-Gu, Incheon<sup>2)</sup>, Dep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 Hospital, Incheon<sup>3)</sup>

혈색소 질환이 거의 없는 국내에서는 잘못된 식습관과 부적절한 이유식섭취로 인한 철결핍과 이로 인한 빈혈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모유만으로는 성장이 늦추어지고 출생 시의 체내 철분 저장량이 낮아져 철분 보충이 필요하게 되는 생후 4~6개월에는 특히 철분을 비롯한 영양소의 보충을 위해 이유식의 실시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9월 인천 중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모유수유 선발대회에 참여한 평균월령 5.5 ± 0.7 월인 영아 101명을 대상으로 어머니들에게 설문지로 현재 영아 수유방법과 이유실행사항 등의 실태를 여러 환경적 요인에 따라 분석해 보고 양육인이 가지고 있는 이유식에 대한 지식정도를 파악해봄으로써, 앞으로 이유식 영양지도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 직후의 모유영양율은 낮게 나타났고 ( $P < 0.05$ ), 출생순위가 낮아질수록 출생 직후의 모유영양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P < 0.05$ ). 전체 ( $n=101$ )를 대상으로 보면 모유영양이 41.6%, 인공영양이 14.9%, 혼합영양이 43.6% 였다.

2) 고졸이상의 어머니가 대졸이상의 어머니보다 이유시작시기가 유의적으로 빠르게 나타났고 ( $P < 0.05$ ), 조사 대상자 ( $n=101$ )의 이유 시작 시기는 평균 4.9 ± 0.8 개월로 출생서열에 따라서 이유시작 시기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이유식의 종류는 어머니의 학력과 영아의 출생서열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대상자( $n=101$ )의 83.1%가 이유식을 직접 만든다고 했다.

4) 영아에게 처음 시도한 이유식의 종류는 쌀미음이 66.7%, 과일즙 18.5%, 전식 6.2%, 상업용 이유식 4.9%, 기타(요플레, 다시마 물) 3.7% 였다.

5) 주로 먹는 이유식의 종류는 대상아의 32.8%가 야채죽 (단호박죽, 감자죽, 당근죽 등)을 섭취하고, 30.5%는 쌀미음을 섭취하고 있었고, 27.7%는 과일즙을 9.0%는 기타(계란, 된장국, 닭죽 등)를 주로 섭취하고 있었다.

6) 어머니의 이유지식점수는 대졸이상 어머니의 점수가 7.82 ± 1.24점으로 고졸 어머니의 7.25 ± 1.54점에 비해  $P < 0.05$ 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왔다. 영아의 출생순서에 따라 비교해보면 영아가 첫째인 어머니의 점수가 7.57 ± 1.40 점, 둘째인 어머니의 점수가 7.37 ± 1.56 점, 셋째인 어머니의 점수가 6.17 ± 2.14 점으로  $P < 0.05$ 에서 유의적으로 차이가 났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아 어머니의 이유지식 중 철분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므로 이유시기(4~6개월)에 철분필요량이 많고 이 시기에 철분강화식이 필요함을 교육하여 영유아의 균형된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이유를 통하여 이유기 빈혈문제가 개선될 수 있음을 추후조사와 관리를 통해 계속적 feedback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